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예배합니다 /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 열방의 소망 / 하나님의 부르심 /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다같이
대표기도		김영훈
*성경봉독	마7:15-27	조영호
말씀	순종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말씀 앞에서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하지수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네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 (마7:15-27)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 이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5장-7장에서 긴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지금까지 한 말들을 지키는 것, 즉,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너무 강해서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비유에서 ‘나무는 믿음이고, 열매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귀에 박히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진리지만, 여기에 다소 신앙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주님 만난 후에 은혜로 믿음이 생기면, “난 믿으니가 천국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따라오는 순종은 하면 좋고, 안해도 구원받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잘 다니는 후 후배들과 함께 신앙적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사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 행위의 부분을 얼마나 히스테리적으로 배제해 왔는지를 저 스스로도 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21절)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죄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롬 3:28) 반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약 2:26) 이 두 말씀은 서로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믿은 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순종함이 따라온다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믿는데도 행함이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주님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강력하게 당부하십니다. 주께서 경계하시는 거짓 선지자가 바로,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15-16절) 이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합니다. 하나님 애기도 잘 하고, 말씀도 가르칠 만큼 압니다. 또 이들은 권능도 행합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들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고’ (21절), ‘불법을 행하는 자’ (23절)라고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오직,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는데, 열매는 곧 그의 행동들입니다. 최근 넷플릭스를 뜨겁게 달군 “나는 신이다”는 프로그램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이버 교주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들은 성적으로, 금전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무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일삼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열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리떼인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이버까지는 아니지만 순종할 것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로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구절들 뿐 아니라, 심지어는 동성애를 강조한 바울이 쓴 서신서 전체를 아예 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청지기적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공평한 이웃을 도우라고 강조합니다. 최근 교회들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강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음주 문제에 대해서 방탕한 것이라고 주의할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언제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마시지 말라고 하셨나?”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합니다.

성경은 기록될 당시 시장에서 쓰이는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Koine Greek) 따라서, 성경은 일정한 학력적 수준이 있어야만 그 속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분만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공부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침소봉대하여, 모든 성경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이버보다 더 위험한 것이요, 순종을 저해하는 것이며, 결국 이리떼인 것입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힘들어도 우리는 순종의 자세를 갖춰 나가야 합니다. 성경도 단순히 이해할 마음으로 읽는 것과, 순종할 마음으로 읽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head knowledge와 heart knowledge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성경이 180도 달리 보일 것입니다.

말씀산책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유빈이 대답, “어떤 사람을 신뢰해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것”) 순종을 잘 하려면 우리 순종의 궁극적 대상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분을 진정으로 신뢰하면, 그 분을 따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주님은 ‘모든 성경이 자신에 관해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5:39)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으면, 그 분을 따르는 곳 (순종)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머리가 되신 지상의 하늘 나라입니다. 교회의 부족한 모습과 상관없이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교회에 세운 리더십은 주께서 교회(믿는 백성의 모임)를 성장시키고, 축복하시려 구별하여 세운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분들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리더십을 평가합니까? 순종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세워진 권위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단, 세상 권세자가 하나님의 권세에 반한다면, 그뻘 우리는 궁극적 권세이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25절) 순종함이 있는 믿음은 세상의 고난이 몰려올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순종의 믿음에는 성장과 성숙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순종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은 고난이 닥치면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할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많으면 순종 못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최고의 본을 보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분이 자원하여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오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역설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순종의 반석 위에 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1.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느꼈거나, 다시금 정리된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나의 순종의 태도에 대해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이에 대해 새롭게 결단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나누어 보세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후원부 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예배시간 : 매 주일 오후 1시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배도중에는 이동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축하

김지은, 김태동, 김현정, 노지윤, 이령희, 이보배

환송

김영훈 형제 (캘리포니아로 이주)

중보기도학교

일시 : 5월 6일 13일 20일 27일(토) 4주간, 오후 2시, 2층 청년부 예배실

2023년 드림키즈 써머캠프 교사 지원

기간 : 7월 10~28일 (3주간)
문의 : 정지혜 집사 (jeehye518@gmail.com)

음악부 광고

주님께 영광 올리고 함께 믿음으로 섬길 찬양대 지휘자 찾습니다.
접수기간 : 5/1~5/31
자격요건 : 정규 음대 졸업한 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세례 받으신 분, 지휘 경험 있으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서
문의 : akpc-music@akpc.org

팀원 모집

기획팀 - 청년부 행사 기획을 함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 (문의: 정재인)
라이드팀 - 주일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오은비, 조윤)
찬양팀 - 남/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문의: 조학영)



청년부 신입 QR

Teacher appreciation

주일학교에서 교사와 자원봉사로 수고하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영유아부: 고현이, 강현아, 허소정, 남원우, 한동우, 최지연
- 유치부: 유건이, 김지은, 원태연, 정재인, 김정민
- 유년부: 민현진, 김태동, 조학영
- 중고등부: 하지수, 임은지, 이령희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금요기도모임

청년목장

Good Morning 말씀산책

토요무릎기도회

주일 1pm

금 7pm

주중 또는 예배후

월-금 6:30am

토 6:30am

AKPC PSALM_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오은비	eunbe.or@gmail.com
새가족 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